

# 인디아, 가스 가격인상 “논란”

## 석유장관, 개발 위해 불가피 ... Reliance에게 혜택 꼼수 비난

인디아에서 가스 가격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인상안을 마련한 비라과 모일리 석유장관은 인디아기업이 가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인디아 메이저인 Reliance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상안은 현재 가스 100만BTU(열량단위)당 4.2달러인 인디아 가격을 6.7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난이 지속되자 모일리 장관은 6월14일(현지시간) 수도 뉴델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소 <이색적인> 주장을 폈다고 인디아 언론이 6월15일 보도했다.

자신을 비롯한 전·현직 석유장관이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하지 말라는 로비를 받아왔으며, 인디아에는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이전 장관들이 로비를 받아 외국 원유 및 가스 수입을 계속해 인디아기업의 에너지 개발을 고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장관과는 달리 로비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가스 가격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가 3월 끝난 2012-2013 회계연도 원유 및 가스 수입에 1600억달러를 지출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로비세력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제1야당인 인디아국민당(BJP) 등 야권은 모일리 장관이 Reliance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스가격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석유장관을 지낸 BJP의 고위 당직자인 람 나이크는 자신의 장관 재임기간 로비를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며 모일리 장관은 전직 장관 중 누가 로비를 받았는지 상세히 공개하라고 역공했다.

인디아공산당(CPJ) 소속 연방하원 의원인 구루다스 다스굽타는 “모일리 장관의 말은 거짓”이라며 “외국에서 원유 및 가스를 독점 수입하는 공기업이 어떻게 석유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스굽타 의원은 “모일리 장관은 가스가격 인상안이 정부 안팎의 반대에 직면하자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일리 장관은 “가스개발 촉진방안을 놓고 다스굽타 의원은 물론 누구와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7>